

가고시마성에서 볼 수 있는 가고시마의 석재 문화

鹿児島城に見る鹿児島の石文化

Kagoshima stone culture seen in Kagoshima Castl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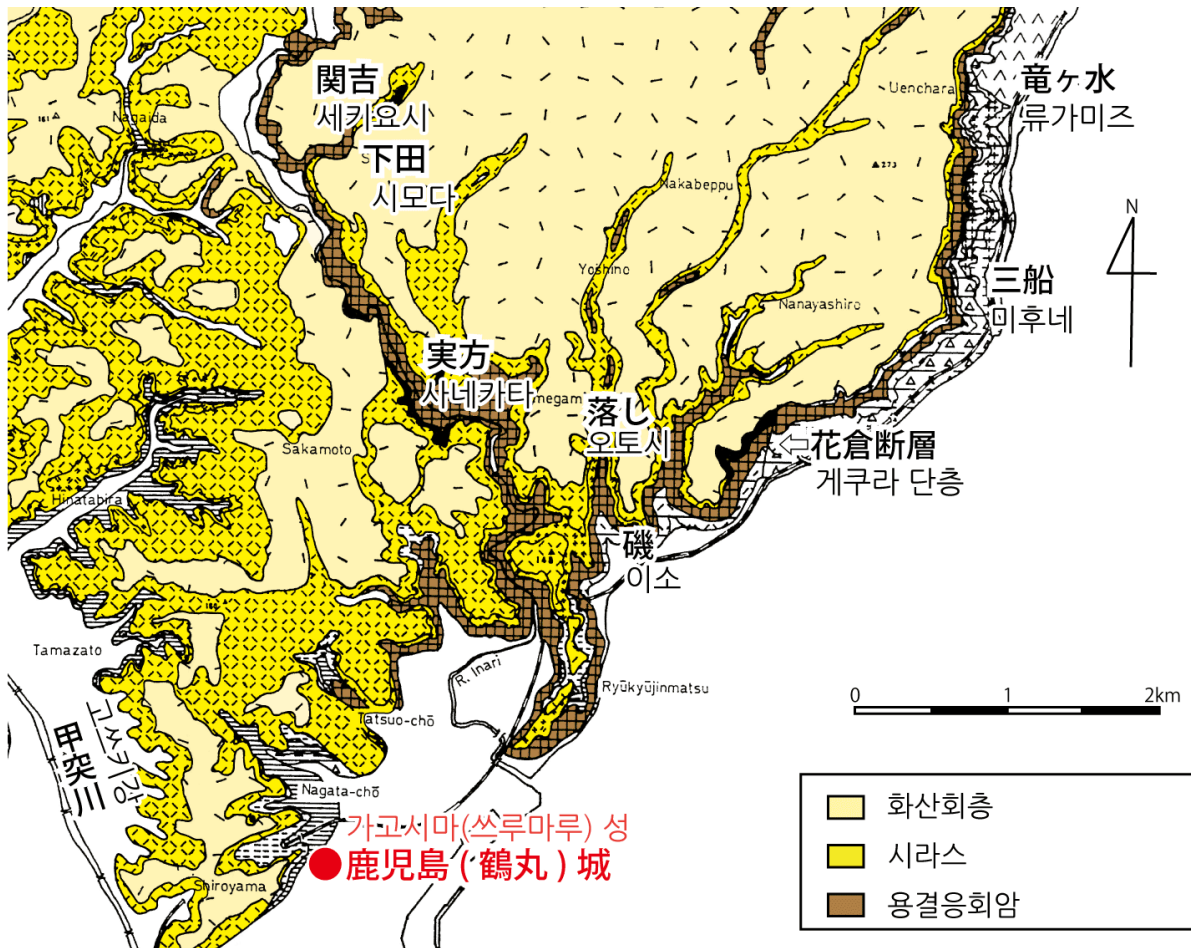
于鹿児島城内所见的鹿児島石头文化

於鹿児島城内所見的鹿児島石頭文化

화산이 많은 가고시마에게는 화쇄류 퇴적물이 스스로의 열과 압력으로 녹아 굳어져 만들어진 용결응회암이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. 이 용결응회암은 비교적 가공하기 쉽고 예부터 다양한 석조물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변에 이러한 ‘돌 문화’를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. 가고시마(쓰루마루) 성의 석벽에도 용결응회암은 이용되었습니다.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약 50만년 전의 분화로 만들어진 요시노 화쇄류 퇴적물의 용결응회암이며 이것은 ‘단타도 석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

가고시마(쓰루마루) 성의 석벽의 대부분은 석재를 사각형으로 가공 정형하여 쌓는 ‘기리코미하기’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쌓여 있습니다. 석재 표면을 잘 관찰하면 다가네로 정성스럽게 정형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. 또, 번주(藩主: 번(藩)의 영주)나 귀빈객만이 통과할 수 있는 누문(御樓門)으로부터 가라고몬 문(唐御門)에 걸쳐서 ‘깃코즈미(龜甲積: 석재를 육각형으로 가공해서 쌓아 올리는 방법)나 금장취잔적(金場取残積: 돌면 주위를 평평하게 해서 돌면 중앙을 거칠게 깎아 남기는 방법) 등의, 섬세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돌담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가공하기 쉬운 석재를 쉽게 입수할 수 있었던 이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

또한, 단타도 석으로 만들어진 주된 석조물로는, 센간엔(仙巖園)에 있는 반사로 유적, 테라야마 스미가마야토(숫가마 유적), 긴코만(錦江湾) 연안에 쌓여진 포대 자국 등이 있습니다.



▲가고시마현 용결응회암분포도

(大木公彦・早坂祥三<1970>「鹿児島市北部地域における第四系の層序」『鹿児島大学理学部紀要<地学, 生物学>』)



▲용결응회암 수직단면

수직단면에 보이는 검은 층은 화쇄류 퇴적물이 열과 압력에 의해 흑요석으로 변화한 것. 위에서 압력이 가해져 가늘고 긴 층상으로 되어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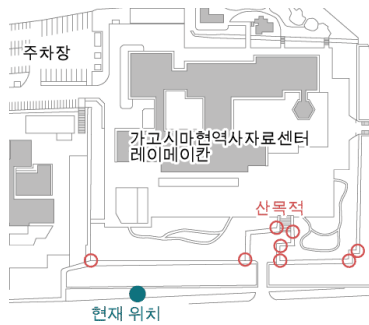
▲용결응회암 수평단면

여러 물질을 함유한 화쇄류 퇴적물이 열과 압밀 작용으로 용해되고 응결되어 바위가 되었다.

석축 기술

【산목적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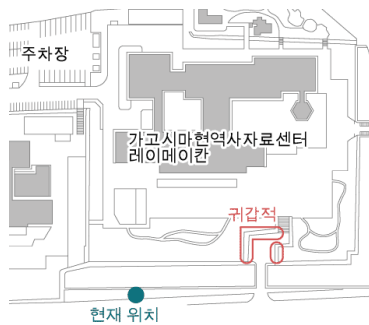
산목적이란 돌담의 모서리 (우각 • 돌출각 모두) 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축조 방법입니다. 우각에 큰 직방체로 가공한 돌을 이용하여 긴 면과 짧은 면을 서로 엇물리게 쌓습니다.



특징적인 석축

【귀갑적】

귀갑적이란 석재를 육각형으로 가공하여 돌담을 쌓는 방법입니다. 돌 모양이 거북등무늬로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. 가고시마 (쓰루마루) 성에서는 누문과 가라고몬 문 사이의 돌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

【금장취잔적】

금장취잔적이란 석재의 테두리를 깎는 가공을 하는 축조 방법입니다. 가고시마 (쓰루마루) 성 혼마루의 돌담에서 볼 수 있으며, 누문 주변은 석재의 가장자리 (금장) 에 회반죽을 칠한 희귀한 방법을 썼습니다.

